



정교회주보

제2543호
2025년 9월 2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및 종례일
요나 예언자
(제6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2,3 응송 사도경 574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십자가 현양 축일 입당송 191
- " " 축일 찬양송 191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191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196
- 복음경 : 마르코 8,34~9,1 197
- 성모송 193
- 영성체성혈송 193
- '우리가 참빛' 대신 '축일 찬양송' 191

사진 설명

성당 종(鐘)

종 (사진)은 단순한 시간 알리거나 모임 신호를 위한 도구를 넘어 깊은 신학적·상징적 의미를 지닌 예배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종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에 비유되며,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 즉 성전으로 이끌어 위로하고 희망과 구원을 전해 주는 영적 소통을 위한 메시지이다. 또한 종소리는 음색과 강약에 따라 축하, 슬픔, 위험 경보 등 다양한 상황을 구별하여 전달하며, 이는 교회 공동체의 경축과 애도, 경계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교회와 수도원에서 금속봉이나 납작한 금속을 사용하다가, 9세기경 대형 종이 도입되어 점차 예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종의 개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1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한 분이신 하느님 또는 하나인 교회를, 3개는 성 삼위일체를, 4개는 4복음서를, 7개는 일곱 성사를, 12개는 열두 사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믿는 대상이 필요하다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사람을 우리는 신자 또는 교인이라고 부른다. 성찬예식에서도 예비교인과 세례교인의 구분을 하고 있고, 초대교회 때는 예비교인의 성찬예식 참여가 한정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로는 테살로니카 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싫어해서 온갖 계락을 써서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의 유혹으로 마음을 빼앗겨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기 힘든 것이다. 사탄의 유혹은 매우 다양하여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물질과 권력, 쾌락, 비이성적 종교관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사탄의 나라로 가도록 밤낮으로 온갖 노력을 다한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이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특성이나 성질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로 인함이다.

‘믿음’은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믿고 서로에게 유익함이 제공되면 아주 원만한 삶을 엮어 나갈 수 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믿음이 깨지고 불신으로 변하면 서로 간에 원수로 변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예로부터 초자연의 거대함에 억눌려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자 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하였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었으나 인간은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따르기보다는 보이는 신의 존재를 원하여 인간보다 힘이 센 자연과 동물을 섬기게 되었고, 그마저 부족함을 느껴 자신들의 입맛대로 추상적인 우상을 만들어 신이랍시고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법이나, 운명, 점성술, 자연적으로 신기하게 만들어진 나무나 돌, 신화적인 인물 등을 신처럼 떠받들며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곤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다.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다.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보아서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내려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성령이 함께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 물론 이성적으로도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은총으로 믿음이 싹트지 않으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초대교회 때도 지식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부질없는 논쟁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그릇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느님을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 하며 급기야는 이단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

(4면에서 계속)

세상에 보내는 정교회 메시지

세라핌 로즈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오늘날 정교회에 대해 가장 깊이 있고 매력적인 것은 사랑에 대한 정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세계에 대한 가장 실망스러운 사실은 세상이 너무 차갑고, 인정이 없이 삭막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주된 특징으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마태오 24,12)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 신학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별한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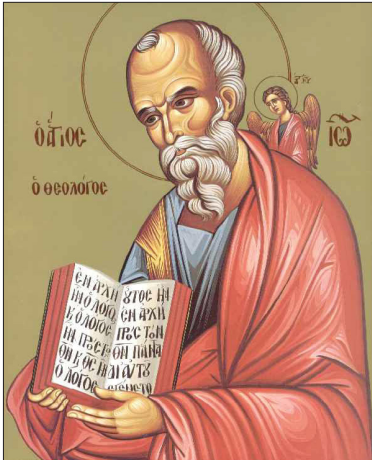
* 세라핌 로즈 수도사제 : 1934-1982,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알래스카의 성 허먼 수도원 공동 설립자

근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교회 성인들은 사랑이 충만한 분들로서 자신들의 모범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정교 신앙의 풍부함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가르침과 그에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대의 비참하고 우울한 인류를 향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제아무리 온갖 외적인 편리함과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누리다 해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분명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 까닭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실제로 식었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차갑게 식어서는 안 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26일(금)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금),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면에서 계속)

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1고린토 2,5)

믿음은 그것을 마음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17)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고백자들, 증거자들 그리고 성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어 오늘날 지상에 교회를 굳건히 서게 한 것이다. 과학과 의학 그 밖에 인간의 지식이 날로 발전하여

알림

■ NCKK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의 추천 성당, 가평 수도원 방문
 지난 8일(월)에 NCKK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위원장(강태석 구세군사관)과 위원일행이 간사 조성원 목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가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추천 성당 주임신부로 함께 했고, 아가티 수녀도 수도원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 2025 NCKK 에큐메니칼 세미나

지난 10일(수),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2025 NCKK 하반기 에큐메니칼 세미나 <니케아 1700년 일치와 화해를 향한 여정>이 열렸습니다. 장신대 백충현 교수의 “니케아 1700주년의 현재적 의미와 적용”이라는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에피파니오스 신부가 논찬자로 참여하여 정교회의 관점에서 수용 및 비평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발표 제목: 교회, 동일본질,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 동방 교부 전통에서의 이해). 대교구에서는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박인현 미카엘 교우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신시온 니콜라스 아기(인천 성당 신재우 스피리돈-신 크리스티나 부부의 다섯째)가 지난 16일(화)에 주님의 품 안에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은 17일 용미리 교회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정교회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소망을 굳게 간직하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물질세계에 빠져 신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요즘 세대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로마 1,17)라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